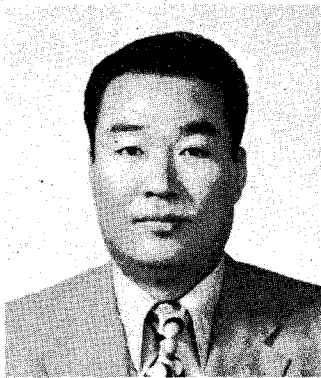


## 1980년대 산업안정을 위한 제도확립해야



朴 永 寅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장)

1970년대의 韓國養鷄産業을 지켜 보아준 “月刊 養鷄” 10주년을 축하한다. “월간 양계는 지난 10년간 산업성장을 위한 試行緒誤의 實驗과정에서 새로운 기술보급과 여론의 광장 구실에 앞장섰다고 믿어 더욱 경하해마지 않는다.

1980년대의 한국양계산업은 70년대의 成長指向的 經驗을 종합 정리하여 명실상부한 산업발전을 기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발전을 촉구하는데 있어 “월간양계”는 70 년대의 역할 보다도 더한, 80년대에 부응하는 기능을 다해 줄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의 10년은 주변여건, 특히 경제, 사회발전과 더불어 양계산업에도 큰 뜻이 부여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단순하게 鷄産物수요가 있으니 생산만 하면 되는 산업이라는 낙관적 전망에서의 뜻이 아니라, 발전산업 으로서의 消費者 嗜好에 영합하며 생산자 經濟 效率면의 기본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뜻, 다시 말하면 80년대는 기필코 産業安定을 기하는 연대이어야 한다는 뜻이 주어질 것 같다.

지난 10년 동안에 경험한 많은 事實 들은 금후의 生産能率을 향상시키고 산업 발전을 획책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귀중한 것들일 것이다.

그 많은 말, 그 많은 글을 종합한다면 80년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한다는 知慧로 흡족할 것이고 그 많은 경제적 損失과 不安을 거울 삼는다면 80 년대의 단합되고 질서있는 産業整備를 향한 協力과 推進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말과 글과 손실과 불안이 그 자체로 끝나고 새로운 발전의 밑거름으로 쓰여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80년대에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다.

필자는 1980년대가 “韓國養鷄産業安定을 위한 制度確立”의 10년이 될 것을 기대 한다. 현대는 組織과 制度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英雄豪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를 필요로 하는 시대, 80년대의 양계 산업도 모든 문제해결책에 대하여 제도화 해야 할 것이다. 생산자 개별 경영조직의 경우도 그렇지만 산업전체의 조직문제에서 더욱 그렇다. 生産者組織의 자율적 제도정립은 물론 義務的 參與 또는 강제적 調整을 위한 입법 및 행정 역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도화하는 것이 발전을 위한 첩경일 것이다.

80년대 초반에 해야 할 시급을 요하는 일 중의 하나는 양계산업안정발전을 위한 母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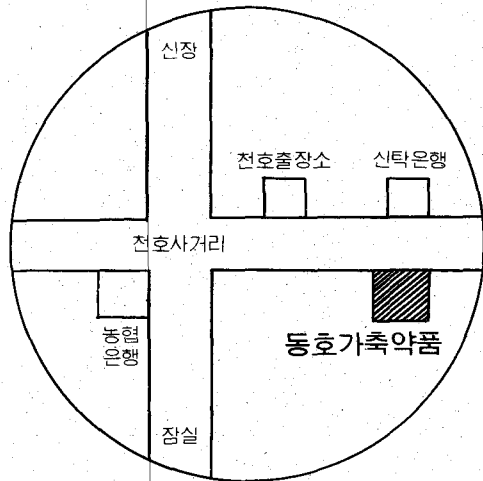
的 성격의 養鷄法 제정인 것 같다. 이법에 의하여 鷄産物의 生産, 流通, 消費에 걸치는 산업전체의 均衡的 發展을 위해 安定 基般을 조성하고 系列化를 추진하며 나아가 이런 업무를 전달하는 기구의 설치 또는 지정과 學界主導的 産業體制 구축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70년대의 韓國養鷄産業이 投機業이었다면 80년대는 무엇이었다고 불려지게 될지 1989년의 일이 궁금하다. 80년대도 투기업이었다고 다시금 이를 붙여져서는 절대 안 되겠다. 최소한, “安定發展을 위한 여러 制度가 만들어졌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랄 뿐이다.

# 동호가축약품상사

- 난치성 질병 상담
- 칠면조 사양·질병 상담
- 가축약품 종합 판매

수의사 : 이 동 춘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10-186

☎ 48-0865